

# 신당,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 양측 합의...지도부도 동수 구성키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만들 통합 신당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된다. 또 지도부도 양측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지도부와 관련해 양 대표가 공동대표로 하고 지도부를 동수로 구성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동대표체제는 '5대5'라는 신당 창당 합의 정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두 집단 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날 양측 대변인은 공동대표의

임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임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지방선거가 90여일 남은 상황인 만큼, 일단 투톱체제로 선거를 치르고 그 후에 본격적인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를 새로 결정하는 진행순서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우측 신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양측 지도부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野 '신당'에 맞서 ... 與, 중진 총동원

## 남경필 경기지사·유정복 인천시장 출마 선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통합신당 카드에 맞서 새누리당이 중진 차출 카드로 강력한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당장,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5일 각각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당내 최다선(7선)의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에 이어 5선의 남의원, 3선의 유정복이 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통합신당 바람을 막을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다.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가 향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판가름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는 정병국, 원유철, 남경필 의원이 나서게 됐으며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학재 의원, 유정복 장관이 치열한 경쟁전을 펼치게 됐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는 오는 14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귀국과 함께 출마를 공식화하면 이혜훈 최고위원과 정몽준 의원의 3자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서울 수도권 광역단체장 경선에 참여할 새누리당의 대진표가 잠정 확정되면서 공정한 상향식 공천제 도입과 전략공천 배제 주장 등 각 후보 진영의 살아 싸움도 본격화

되고 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유 전 장관은 출마 선언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박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며 박 대통령과 유 전 장관에 대한 맹공을 내놨다.

이번 논란은 6·4 지방선거를 불과 90여일 남겨두고 불거진 것이어서 선거전 초입에 서부터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6·4 지방선거 현장

## 광역단체장

### 윤장현, 부산서 신당 창당 설명회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5일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함께 부산을 방문, 신당 창당 설명회를 가졌다.

윤 위원장은 이날 새정치 지지자들에게 신당 창당 선언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히고 동시에 변함없는 지지와 새정치 참여를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제3지대 신당 창당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정치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으로부터 기초선거 무공천을 받아낸 것 자체가 바로 새정치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 주승용, "중자 새 품종 개발 지원책 마련"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5일 전남농업기술원과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는 종자전쟁 시대에 돌입했고, 우리나라도 종자 로열티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며 "새 품종 개발과 기존 품종을 개량하는 육종 분야에 대한 지원과 양성에 힘쓰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의 식품산업화와 생산·가공·유통 등을 결합한 6차산업화가 시급하다"며 "전남의 농업은 '보약산업'으로 인식되도록 산업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기초단체장·광역의원

### 유두석, 장성군수 출마 선언

유두석 전 장성군수가 5일 장성군수 출마선언을 했다. 유 전 군수는 이날 장성군청에서 열린 출마기자회견에서 "중단 없는 장성 재창조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경험과 탄탄한 인맥을 가진 본인이 장성군수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군민의 삶보다 위에 있는 군정은 없고 겸손보다 앞서는 정치는 없다"며 "군민의 가치를 군정의 기본에 두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나노산단의 조기 완공, 맞춤형 복지, 읍·면지역균형발전 등 6대 시책을 제시했다.



### 민중기, 화순군수 출마...공직 사퇴

민중기 전남도의회 의정지원관은 5일 화순군수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했다. 민 국장은 이날 "깨끗하고 청렴한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펼쳐 자치단체장들의 잇단 유고와 행정 공백 사태로 속달민 화순 군민의 마음을 깨끗이 치유하겠다"며 군수출마를 선언했다.

또 "청렴과 봉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환경생공직에 몸담아 왔다"면서 "36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온 청렴한 행정 경험과 열정, 그리고 지혜를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화순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 오형근 "주택재개발 사업 방향 바뀌야"

오형근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5일 "재개발 구역이 많은 광주 동구는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철거 뒤 재개발이 아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 무등산의 조망권 보호를 감안한 생활 정주형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방향이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동명동 일원 주거단지 재개발 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에너지자립형 녹색마을이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며 "도시관, 회의실, 작업실, 회의공간을 갖춘 주민 커뮤니티 센터와 주택개량을 통해 공동체 유지, 쾌적한 삶 유지 등의 '일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만곤, 광주 남구 민생탐방 나서

광주 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만곤 예비후보가 남구 민생탐방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주월동 푸른길 공원과 주월동 상가 일대에서 민생탐방을 갖는 등 바깥 중심 다지기에 나섰다. 그는 "탐방 중 한 주민이 '당선되면 민심과 민생을 헤아리기 위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구청장이 되어 달라'고 당부한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진다"고 밝혔다. 또 "인간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푸른길 공원권역·사직공원권역·월산공원권역·방림동 광주전변권역에 난장음악회 등 문화예술단체에 필요한 야외공연장 등 시설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 이성일 "복지사각 없는 서구 만들 것"

이성일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5일 논평을 내고 "광주 서구에서 만큼은 그늘진 층에서 희망을 잃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서민이 없도록 'Help 서구 진흥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서울 송파와 동두천, 경기도 광주 등지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서민들의 잇따른 자살동반자 소식을 접하고 참담했다"며 "국가를 책임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서민생활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펴는 지방정부라도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배종범, 전남도의원 출마

배종범 목포시의회 의장이 6·4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출마를 위해 5일 시의원(의장)을 사직했다. 배 의장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남도의회 제4선거구에서 분구된 제5선거구(부흥·신흥동)에 출마할 예정이다.

그는 "목포와 전남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 곁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실현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면서 "16년간 의원직을 역임하면서 쌓은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오광록기자 cki@kwangju.co.kr



## 公告

###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시세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를 추천했어요

##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야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을 금고에 오시면 꼼꼼 미려가 보장됩니다.

##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 동 지 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